

“첨단산업 유치·관광 활성화 역량 집중”

2023 세에 설계

정인화 광양시장

“소득과 일자리 제공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산업의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정인화 광양시장이 8일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눈물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이차전지, 수소산업, 소재부품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2의 경제도약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의 종합 준공으로 연간 양극재 9만 톤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능력으로 전기차 약 100만 대의 배터리 생산 분량이다.

광양은 단일 제철소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국내 2위이자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 그리고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을 모두 보유한 그야말로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대표

맞춤형 복지 구축 사각지대 해소 이차전지·소재부품 메카 발돋움

하는 경제·산업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리튬솔루션, 포스코 HY 클린메탈, SNNC, 씨아이에스케미칼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어 원료공급에서부터 원료가공, 소재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 시장은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설립으로 철강산업 탄소중립 대응과 이차전지·수소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금속가공과 화학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벽한 탄소중립 산업이면서 미래의 세계 에너지산업을 주도할 수소산업은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



했으며, ‘수소산업 육성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수소산업 육성에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광양만권 수소 순환형 공유망 구축, 수소에너지 산업 선제적 유치 등 2050년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각오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양이 가지고 있는 산과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

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관광개발은 단순히 놀이터 수준이 아니라 최고·최대·최다의 이른바 ‘3최 원칙’ 하에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매력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 동상 건립, 구룡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배알도·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 섬진강변 종합관광지 조성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주춧돌을 놓는다.

매화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는 지역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토음식 관광 브랜드화 추진, 관내 먹거리타운 환경 개선과 음식 콘텐츠를 정비해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 시장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큰 꿈을 품고,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광양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

정 시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령, 장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 도시를 앞당기겠다”고 거듭 강조 했다. /우성진 기자



여수, 관광 발전지수 ‘1등급’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2021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남 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권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에 선정되며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 미항여수’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지역관광 발전지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해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여수시는 2019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등급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관광발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여수=곽재영 기자

화순, 다화용품 사용 챌린지

화순군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에 맞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최소화하고 각종 회의, 행사 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로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화순군 1회용품 ZERO 청사 만들기’를 추진한다.

화순군은 최근 간부회의때 50여명이 참석해 ‘1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챌린지’ 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각종 회의 때 개인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 컵 음료 청사 내 반입 금지 및 사무실 방문객 접대 때 다화용 컵 사용 실천을 위해 34개 실·과·소 및 읍·면도 챌린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순군에서 시작하는 ‘1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챌린지’는 화순군의회,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등 17개 유관기관과 각종 사회단체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군민 모두가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방식은 챌린지 참여 기관(단체)은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며 다음 기관을 지목하여 텀블러 사용을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순군은 추후 청사 인근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때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가져온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보성, 보통교부세 3,099억 확보

역대 최대...경상경비 축소 등 성과

보성군은 2023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99억 원을 확보하며 보통교부세 3,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보성군은 매년 부서별 통계자료관리, 경상경비 축소, 세출예산 구조조정, 체납액의 수입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5년 전 민선 7기 취임에서부터 전 직원회의를 통해 교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부세법 개정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보성군은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위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친환경 농

림,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가스 공급 소매 배관 노선사업, 울포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비롯한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도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보성군의 미래 비전 사업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보통교부세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에 주요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해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성공 모델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를 16개 측정항목 90개의 통계자료 등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부족액에 조정률을 정해 배분하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군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군지부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고향사랑기부제 열기 확산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지부장 장인화),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군지부(지부장 김혜영)가 최근 고흥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새해 고흥군 의회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고

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역설하며 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과 장인화 공무원 노조 지부장, 김혜영 공무원 노조 지부장은 “고향을 위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군민 모두에게 전달돼 고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뜻으로 모았다. /고흥=진중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김영지 삼성프라자 장흥점 대표, 성금 기탁

삼성디지털프라자 장흥점 김영지 대표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김영지 대표는 2012년부터 접수리, 화상환아 의료비 지원,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지원, 김장나누기, 흙뽕머신을 위한 무류담요 지원 등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영지 대표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덕분에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매년 장흥을 위해 도움 주는 김영지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여수 시전초,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여수 시전초등학교(교장 나재근) 학생회가 최근 시전중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직접 나눔장터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시전초 전교학생자치회의(함께하는 행복위원회 부서)

학급 대표들의 결정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게 됐다.

6학년 하효주 학생회장장과 장미노 부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며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전남치과의사회, 광양시에 후원금

전남도치과의사회가 최근 광양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도민사랑 후원금 400만 원을 광양시마음나누리센터, 광양늘사랑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에 각 200만 원씩 지정 기탁했다.

후원금 기탁식에는 오승석 전남도치과의사회 사무국장, 구종국 광양시치과의사회장, 정흥기 광양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후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치과의사회는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 운동’을 펼쳐 회원들의 기부금과 폐금을 수거해 매년 3,000만 원을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우성진 기자